

광산구 평동 주민들 '통합 복지' 누린 '제1호 주인공'



평동 찾아가는 전남행복버스 방문 사진

/광주 광산구청 제공

전남광주 통합 후 첫 광주 방문...평동 주민 30여 명 대상 서비스
건강관리부터 이미용·보행 보조기 세척까지 생활밀착 복지 제공

20일 광산구 평동 주민들이 전남 광주 통합의 복지 혜택을 온몸으로 누렸다.

평동에 따르면, 이날 전남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찾아가는 전남 행복버스'가 봉정경로당을 찾았다.

'전남행복버스'는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옛 전남에서만 운행되다 전남광주 통합으로 광주까지 지역을 확대, 첫 광주 방문지로 광산구 평동에 온 것이다. 경로당에 나타난 '전남행복버스'에 평동 주민 30여명이 모였다.

주민들은 혈압·혈당 측정, 심전도 및 스트레스 검사 등 건강관리, 스마트 치매 예방 체험, 이미용·손톱 관리 등 생활편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가장 호응이 컸던 것은 보행 보

조기 스틱 세차다. 보행 보조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필수품'으로 평소 혼자 관리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다. 어르신들은 스틱 세차로 구석구석 맡겨진 보행 보조기에 함박 웃음을 지었다.

주민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무인 단말기 교육도 진행됐다. 주민들은 "전남에서만 다니던 버스가 광주에 있는 우리 마을도 찾아와 염세도 해주고 건강 상태도 봐주는 걸 보니 통합을 실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충신 평동장은 "통합 시대 농촌 지역 특성에 맞춰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과 혜택을 연계하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의료와 복지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고령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았다.

평동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맞춤형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전남사회서비스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도 강화해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또한 통합에 따른 다양한 복지정책과 지원사업을 주민들에게 적극 안내해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농촌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정관 기자

남구, 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일자리 창출·목표 달성도 등에서 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사업 계획도 주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구청장 김병내)가 고용노동부 주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에서 일자리 목표 공시제 부문 특별상을 받았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을 개최해 공시제와 우수 사업 부문 2개 분야의 수상 지방자치단체를 발표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5월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1차 기초 평가를 한 뒤 첫 단계를 통과한 전국 58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시행했다. 이번 평가

에서는 일자리 대책의 효과성을 비롯해 지방 소멸 대응 노력, 사회적 가치, 일자리 질 개선 노력 등 사업성과 지표와 사업 계획의 적절성 및 일자리 관련 조직의 협력 체계, 정량평가 지표인 고용률, 취업자 수, 피보험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남구는 공시제 분야에서 특별상 수상 지방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특별상 수상 배경으로는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한 종합 일자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해 실행력 높은 고용정책을 펼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남구는 지난해 일자리 창

출 목표인 1만 1,994개보다 1,604개나 많은 1만 3,598개의 일자리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목표 수치를 초과 달성한 기업을 토론했다.

또 민선 8기 일자리 분야 공약 가운데 경제도시 분야 14개 실천 과제 98% 가량 실행으로 옮겨 높은 공약 이행률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남구는 지역 대학을 비롯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 청년센터, 광주신용보증재단, 사회적 경제연합회 등 일자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인재 양성 및 구인·구직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일자리 창출의 갈증을 해소했다.

이밖에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인 구직 단념 청년의 자립을 돕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과 신중년의 재취업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큰 주목을 받았

다. 남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주민과 지역 기업, 지자체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이뤄낸 뜻깊은 성과"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질 향상과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남구는 앞으로도 지역 산업과 고용환경 변화에 발맞춰 지속 가능한 일자리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과 신중년 등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고용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취업 연계도 적극 추진한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용 여건 개선을 지원해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도 힘을 보탬 예정이다.

/박종수 기자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특별상 수상 사진

/광주 남구청 제공

